

**Date:** 27 Iyar 5786 (May 14, 2026)

**Torah Portion:** Bamidbar

**Topic:** 감추어진 점호, 제 2 부

랍비들은 종종 유배(exile)를 달의 이지러짐과 연관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성한 빛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지나지만, 그 이면에는 언약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가시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언약에 대한 충성은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유배 그 자체의 고통, 즉 이별과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의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예견합니다.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의 가르침은 이러한 관점을 강화합니다. 메시아 시대에 관한 논의에서 람밤(Rambam)은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강박적인 추측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묵시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데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올바른 반응은 토라에 대한 확고한 순종과 인격의 수양입니다. 이 원칙은 마태복음 24 장 36 절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숨겨진 시간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있음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냐(Tanya)는 유배가 단순한 정치적 추방이 아니라 영적인 은폐라고 설명합니다. 신성한 생명력은 물질 세계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인류의 과업은 '비루르(birur, בִּירור)', 즉 정화와 세련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앞선 어둠은 변화를 위한 목적에 봉사합니다. 세상의 확신이 무너질 때, 영혼은 궁극적인 충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권력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YHWH)의 영원한 왕권에 매달릴 것인가?

마태복음 24 장은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네 바람에서)" 모으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는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Mishkan) 주변의 지파 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신성한 임재의 가시적인 거처를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진을 쳤습니다. 예언적 환상은 흩어진 유배자들이 다시 한번 신성한 왕권 주위로 모이게 될 미래의 재집결을 내다봅니다. 광야 세대는 최종적인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foreshadow)입니다.

그러나 모임에는 심판과 분리도 포함됩니다. 민수기 3 장과 4 장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성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지파 사이에 구분이 존재했습니다. 거룩함에는 분별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 장은 영적인 경계심을 촉구합니다. 징조를 목격하는 모든 이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적인 소동을 단지 재앙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구원의 산고로 인식합니다.

현자들은 종종 구원을 새벽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이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아침이 오기 직전에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탈무드는 "메시아의 발자국(footsteps of Moshiach)" 시대를 혼란과 불안정, 도덕적 전도로 특징지어지는 시대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 장에 묘사된 외부적인 흔들림은 인류 자체의 내부적인 흔들림에 상응합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거짓된 안전장치들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작별 언약은 마지막 통찰을 제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붕괴와 이별 속에서도 언약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이 영속적인 언약은 이 구절들을 하나로 묶는 숨겨진 실타래가 됩니다. 민수기에서 언약은 진영을 조직하고, 사무엘서에서는 위험 속에서도 충성을 보존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우주적 격변 속에서도 신실한 자들을 지탱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 장 29-36 절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약적 준비를 향한 부름입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은 세상 권력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감추어진 날과 시는 인간의 교만을 낮춥니다. 택하신 자들의 모임은 토라에 세워진 광야의 패턴을 성취합니다. 유배 중인 다윗처럼 감추어진 왕은 결국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과업은 공포가 아니라 신실한 깨어 있음입니다.

이 구절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구원이 계시 이전의 은폐, 영광 이전의 질서, 그리고 왕국 이전의 언약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구 조사, 감추어진 초승달의 징조, 그리고 마태복음의 우주적 징조는 모두 동일한 진리를 증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을 때라도 당신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그 신비(mystery)를 정복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고히 머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Shalom.